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 실현”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신임 윤방섭 회장 취임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7월 3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송하진 도지사,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등 내·외빈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회 제26대, 제2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윤방섭 신임회장(제27대)은 취임사에서 지금의 어려운 건설환경을 극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인 모두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4년간 우리 모두와 함께 상생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건설 산업발전을 위해 △SOC 사업비 예산확보 △적정공사비 반영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세만금지역의 모든 공공공사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유관기관과 소통강화 등을 통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익이 존중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윤방섭 회장은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대의원과, 대한건설

협회 윤리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터 회원,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문 건설인으로서 역량은 물론 그동안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6월 4일 인사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제27대 회장으로 추대 되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 불합리한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중소건설업체 발전방안을 마련해 전체에 빠져 있는 지역건설산업이 제도 약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제27대 윤방섭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도내 건설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북도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대영 전임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도내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3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제26대, 제2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특히 세만금사업 지역우대기준을 제정 한 것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했던 소규모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종합건설업이 시공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의 성과가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윤방섭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행사에는 전북도회 제26대 대표

회원 상경례와 출범식과 함께, 전임 제26대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감사를 역임한 장대영 회장과 전 옥 부회장, 소재 철 부회장, 이원범 감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한편 도회 회원들이 이날 축하화환을 대신해 “희망을 키우는 쌀”을 전북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김영태 기자

변화하는 농촌 발전방안 모색한다

농촌진흥청, 한·일 경영포럼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3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의 중앙농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농업·농촌의 역할변화와 한·일 농업경영의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일 농업경영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3개 분야 한·일간 상호 발표를 통해 농업·농촌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분야별로는 ▲신기술·신품종 개발·보급을 통한 농업경영체 지원방안 ▲농업경영체의 규모화·법인화 발전방안 ▲사회적 공헌을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 확대에 구성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즉, 한·일 양국의 다양한 사례 발표

를 통해 유사하면서도 다른 장점들을, 양국의 농업경영에 적절히 융합시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 해로 19회째를 한·일 농업경영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양국의 농업공동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와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한국 농촌진흥청과 일본 중앙농업연구센터가 양국의 농업여건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된 포럼은, 한일 양국의 공통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과 정보 교류가 상호 유익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은 “한·일 농업경영포럼은 한·일 양국의 농업경영 연구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aT,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진행

상훈·장학금·채용기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식품, 외식산업 청년 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제3회 식품외식산업정보(FIS, www.afts.or.kr)를 활용한 대학생 식품·외식산업 논문경진대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3회째를 맞은 대회는 식품, 외식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식품, 외식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다솜 학생 외 3명이 당 조절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논문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 aT 사장상 등의 상훈과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내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인턴 지원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수상자는 우수논문집으로 제작되어 식품외식기업 인사부서에 배포되며, 연말에 개최되는 ‘2020 식품외식산업 전람회’에 배포되어 식품외식산업의 우수 인재를 알리는 데 활용된다.

대학생(휴학생 포함, 개인 또는 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식품외식산업통계정보(FIS)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 외식산업 발전 등과 연계된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aT 신원근 식품수출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식품산업기술, 시장트렌드의 변화, 마케팅 등 식품외식산업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내 식품외식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친절서비스 앞장서는 고객 중심 ‘금융명가’ 역할 톡톡

NH농협은행 전북혁신도시지점, 농협 대표 지점으로 성장... 2년 연속 1위 사무소 업적 달성·총화상 수상 등

농협전북혁신도시지점(지점장 진기영)이 올해 총화상, 여수신 달성탑, 금융인상, 농협인상 등 연이은 수상에 화제가 되고있다.

전북혁신도시지점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종합업적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올해 총수신 3조원·우량여신 2000억원 달성해 2019년 1분기 종합업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인화단결·사회공헌·친절봉사·사업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농협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 ‘총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농협 금융인상(과장 허무영)과 이달의 농협인상(계장 정봉수) 수상자를 배출하며 농협은행을 대표하는 지점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점주권 골목길 청소, 농촌일손돕기, 고객 사은행사, 혁신도시 내 초중고교 금융교육 등을 진행



농협전북혁신도시지점이 올해 총화상, 여수신 달성탑, 금융인상, 농협인상 등 연이은 수상에 화제가 되고있다.

하며 농협의 가치인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농협전북혁신도시지점 진기영 지점장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

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한 결과지만 고객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며, “전북혁신도시지

점이 고객 중심의 ‘금융명가’로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우수농가 2호 선정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2일 지역본부에서 진행 된 정례조회에서 제2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전북예선상반기 우수농가 2호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는 무진장축협 조합원 진안초원축재지농장(대표 임화숙, 양돈)과 임실축협 조합원 성수농장(대표 윤영재, 꾀소)으로 이들 농가는 가족분노 및 냄새로 인한 주변 민원이 없으며, 깨끗한 축사관리로 사육환경의 우

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수상자는 농협경제지주가 실시하는 제2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본선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필수라고 생각하며, 축산관계자 모두의 자정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cs.or.kr *전자우편 : jvcs@hanmail.net